



## 선배 존경 후배 사랑 증표 제4회 황금메아리상 MBC TV <생방송 오늘아침> 신동진 이재은 cpbc <라디오 성경> 박성호 수상

임국희 회장 '시·청취자를 위해 더 좋은 방송, 더 훌륭한 방송을 해 주세요'

6월 1일 여의도 열빈 정례 모임과 제4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개최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는 훈훈한 자리가 펼쳐졌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 2018년 2분기 정례 모임 겸 제4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열빈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4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는 MBC TV <생방송 오늘아침> 신동진, 이재은, cpbc <라디오 성경> 박성호 아나운서가 선정되었다. 수상 소감 2면

임국희 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한다. '좋은 방송, 훌륭한 방송'에 매진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달라.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씩씩하게 나가시다."라고 인사했다.

축사에서 황우겸 고문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아나운서 세계엔 선배와 후배의 관계, 위계질서가 중요하다. 아나운서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고, 임택근 고문은 "여러분을 만나니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이형균 류수민 이정민 박성호 이나래 남궁미 김슬애 채영신 신의석 원종배 이계진 안주희 윤희자 김상준 김채영 이현우 정영희 박찬숙 권혁화 전옥수 이해옥 전찬희 강재형 맹관영 이후재 배덕환 임택근 임국희 황우겸 김규홍 박민정 황선숙 백연숙 황인우 이재은 구은영 신동진 김현태 김상호 김준우 김홍성 김태규 김범도 정세진 김지현

참 행복하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신의 가호를 빈다."라고 축원했다.

박찬숙 부회장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선배님도 계셨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안을 주는 후배들도 있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사우나!'"라고 건배했다.

KBS 김현태 실장은 "아나운서실이 7, 8년간 이어진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가길 바라며, 퇴직 후 아나운서클럽에서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라고 말했다.

MBC 강재형 국장은 "KBS 아나운서실이 100명이 넘는 데 비해 우린 40명.

부국장 직책도 신설하는 등 보직을 늘려 잘 이끌어보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BS 김준우 협회장은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가운데, 8명이 열심히 방송하고 있다. '3사아카데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후배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OBS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cpbc 김지현 부장은 "가톨릭평화방송 창립 30주년, 청년의 나이이다. 영광송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처럼 되기를 기도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회자 박민정 사무총장이 "황금메아리상은 진정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마음이 담긴 상이 아닐 수 없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지 마시고 가끔 나와서 정을 나누기 바란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아나운서클럽 2분기 정례 모임 겸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은 시종일관 정담과 웃음 속에서 진행되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미영, 장승철 강성곤 최재혁 위원으로 선임



오미영



장승철



강성곤



최재혁

가천대에서 후진을 양성해왔다. 또한 제10대 한국소통학회 회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장승철 회원은 1982년 입사, 아나운서부장을 거쳐 울산, 춘천방송 본부장을 지내고 2016년 정년퇴임

했다. 1993년에 KBO 올해의 야구 캐스터상과 한국아나운서대상을 수상했다.

강성곤 회원은 1985년 공채 11기로 입사, 1999년부터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어 발음 실용 소사전」, 「현장 리포팅과 방송스피치」를 펴냈고, 2006년부터 정부·언론 외래어심의위원을 지냈다.

1986년 입사해 2017년 퇴직한 최재혁 회원은 10여 년간 한글날에 우리말 관련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했으며 아나운서국장, 사장 특보를 거쳐 MBC제주 사장을 지냈다.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오미영(전 KBS) 교수가 6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장승철(전 CBS), 최재혁(전 MBC) 회원과 강성곤(KBS) 아나운서도 선임되어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오미영 회원은 1979년 공채 6기로 입사해 1982년 퇴사 후 한국일보 LA지사 기자, 프리랜서 MC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았으며 2002년 중앙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2003년부터

### 仁泉 장기범 30주기로 마지막 추모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인우 이계진 고광수 김성호 박영웅 정희준 김선동 이규향 이세진 전우벽 김상준

'영원한 한국의 아나운서, 인천仁泉 장기범 선생' 제30주기 추모식이 5월 5일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이계진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공식 추모회를 접기로 한 25주기 이후에도 삼삼오오 모이다 보니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30주기로 마감하기로 하고, 14명의 아나운서들이 마지막 추모의 자리를 만든 것이다.

추모식에서 3남 재용 씨는 "30년간 선친을 기리며 추억과 정담을 나누어주신 아나운서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이규향 회원은 "아나운서는 선택된 사람,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박영웅 회원은 "늘 '잘한다' 칭찬해주신 덕분에 더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추모했다.

방송이 시작된 1927년 태어나 1988년 작고한 인천 선생 추모회는 끝났지만, 이계진 부회장이 2003년 제정한 '장기범상'과 김성호 박사의 '장기범 평전'(지식산업사, 2007년)을 통해 그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을 것이다.

한편 제30주기 추모식은 「고대교우회보」 제574호 17면에 '모든 방송인의 사표'란 특집 기사(이계진 글)로 실렸다.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나운서 출신 선전



배현진



박선영



박영선



한준호

거에 출마해 29.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선영(전 MBC) 회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자유 우파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해 36.2%를 득표하며 선전善戰했다.

한편 박영선(전 MBC) 회원은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 이상호 의원과 경합을 벌였고, 지난 3월 퇴사한 한준호(전 MBC) 회원은 이상호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6월 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나운서 출신들도 관심을 모았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배현진(전 MBC) 회원이 지난 3월 퇴사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 서울 송파구를 국회의원 보궐 선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3분기 정례 모임  
9월 4일(화)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





### 제4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 MBC 신동진

〈생방송 오늘아침〉(월 ~ 목 08:30 ~ 09:30)



올 1월부터 이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생방송 오늘아침〉 진행을 맡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하고 있다.

1996년 입사해 TV 〈930 뉴스〉, 〈12시 뉴스〉, 〈5시 뉴스〉, 〈스포츠 뉴스〉, 〈신동진의 미니콘서트〉, 〈비바 스포츠 천국〉, 〈2002 월드컵 우리는 지금〉, 〈활력충전 36.5〉과 라디오 〈클래식은 아름다워〉, 〈모두가 사랑이예요〉를 진행했다.

2008년 한국어문상 문체부장관상, '안녕! 우리말 콘서트'를 기획해 2014년 국립국어원장상, 2017년 한국아나운서대상 장기범성(MBC 단체)을 수상했다. 제15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2013년~2015년)과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2009년~2014년)를 역임했으며 2014년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으로 헤아리겠습니다

제게 방송이란 의미는 2012년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직장인들처럼 제 일이 방송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스스로가 선택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70여 일간의 파업을 경험했습니다. 이어 타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심신이 지쳐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동료 아나운서들이 방송하는 것을 보면 나오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게 다시 방송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던 그 시간들은 잠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이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6년 만에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했고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회와 회사와 아나운서국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힘들어하는 시청자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로 위로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역량껏 목소리

를 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회사에 출근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제게는 그저 기적입니다. 복귀작으로 이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생방송 오늘아침〉을 맡은 건 큰 행운입니다. 이재은 아나운서는 후배지만 탁월한 진행 능력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동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서민들에게는 고단함 그 자체이기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려 방송을 제대로 방송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때문에 말 한마디에 더 신경을 쓰고 그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5개월 남짓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는다니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신경 써서 잘하라는 주마가편으로 헤아리면 될런지요. 황금메아리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아나운서클럽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아나운서들에게도 역시 고마움을 표하며, 선배님들의 건강과 맥내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 MBC 이재은 〈생방송 오늘아침〉



2012년 입사 후 〈스포츠매거진〉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MC와 중계 캐스터로 활약했다.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라디오 〈세상을 여는아침 이재은입니다〉와 지난해까지 〈생방송 오늘저녁〉을 담당했으며, 현재 〈섹션TV 연예통신〉 〈생방송 오늘아침〉 등의 MC를 맡고 있다.

2015년 한국아나운서대상 라디오진행상과 2017년 MBC 연예대상 MC상을 수상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감동 주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생방송 오늘아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신동진 선배님께서 늘 배려해주시고 즐겁게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황선숙 부국장님이 제게 그렇게 '선한 방송을 하라'고 조언하셔서 그 말씀을 마

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선배님들께서 닦아놓으신 길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님들 가정에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pbc 박성호

〈라디오성경〉(매일 01:00 ~ 02:00)



1992년 입사해 클래식 〈FM 음악공감〉을 비롯해 가요, 팝 〈명동연가〉,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 등 주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FM 음악공감〉 제작·진행으로 2005년 한국방송대상 교양 프로그램 제작상과 2006년 한국아나운서대상 라디오진행자상을 수상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에는 아나운서부장을 맡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관리부서에 재직하다 2017년 11월 복귀했다.

현재 성경 강의 프로그램 〈박기석 신부의 사도행전〉과 〈라디오 성경〉을 제작·진행하고 있다. 〈라디오 성경〉은 구약과 신약성경을 통독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교회음악과 고전음악을 선곡해 신앙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못생긴 소나무 선산 지키듯 방송 지켜온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상

감사합니다. 어릴 적 임국희 회장의 〈여성시대〉를 들었고 차인태 선배님의 〈장학퀴즈〉를 보면서 동경심을 키워왔고 아나운서로 입사해 이계진 선배님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 대선배들이 계신 아나운서클럽에서 상을 주시니 제 아나운서 삶에 있어 참으로 복된 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상은 저희 cpbc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담겨있어 그 어떤 상보다 따뜻한 상이라 생각합니다.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다'라는 말이 있죠. 끈게 자라지도 못하고 생김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 시선을 받지 못하는 소나무도 결국 선산을 지키는 용도로는 쓰인다고요. 지난 25년 아나운서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 음악, 교양, 선교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제작도 해봤지만 내세울 만한 특기가 없어서 늘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운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

는 자부심만은 소심하게 자랑해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상이 아나운서로서 마무리로 들어가는 나이에 참으로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활자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낭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방송을 통해 말씀으로 태어나는 신비를 함께 나누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제 방송을 듣고 한 뼘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제가 대선배 아나운서를 보고 이 직업을 동경했듯,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제 진행을 보고 아나운서를 꿈꾼다면 그 한 사람에게 본은 보일 수 있는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기자로 지망한 저를 아나운서로 전환시켜 합격시켜주신 고故 이철원 아나운서를 떠올리며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회 | 원 | 동 | 정

클럽 회장단, 하반기 사업 등 협의



(왼쪽부터) 김규홍 차인태 성선경 임국희 박민정 박찬숙 이계진 아나운서클럽 회장단이 5월 16일 정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양식당에서 박민정 사무총장도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임원진은 이날 황금메아리상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2018년도 하반기 사업과 운영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불교인문학 서적 「부처님의 밥맛」 출간



이규향 (전 KBS)

5월 8일 불교인문학 서적 「부처님의 밥맛」(동아시아)을 펴냈다. <이규향의 '0'의 행복론>이란 부제처럼 저자는 '밥맛'과 숫자 '0'으로 설명하는 중도의 세계를 강조한다. 자칭 '돈키호테 불자'로서 불교와 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30년 전부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충동원해 불교에 독창적으로 접근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2008년 첫선을 보인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을 2011년 「0의 행복」으로 고쳐 써 9쇄가 발행되었고, 2011년에 일본에서도 초판을 낸 후 2017년에 일본어 제2판을 찍었고 이후 완전히 다시 고쳐 쓴 책이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장으로 취임



성경환 (전 MBC)

정책전문채널 KTV국민방송을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성 원장은 4월 25일 충남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 회원은 1982년 MBC 입사 후 아나운서국장을 거쳐 MBC아카데미 대표이사 사장, 교통방송(TBS) 대표, 성공회대 겸임교수, 원광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SBS사우회 신임 회장으로 아우회 주최



손석기 (전 SBS)

지난 2월 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SBS사우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 후, 5월 17일 경기도 파주 갑악산 출렁다리에서 열린 봄 아우회를 주관했다.

1976년 DBS에 입사한 손 회원은 KBS를 거쳐 1991년 SBS로 이직, 2010년 정년퇴직했으며, 20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홍익대 교양학부 전임교수 임용



이영혜 (전 SBS)

2014년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 지 4년 만인 올 3월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현대인의 의사소통', '발표와 토론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고 있다.

1977년 TBC에 입사한 이 회원은 1985년 KBS 퇴직 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SBS에서 근무했으며, 2013년 2월 광운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방우회 주최 첫 방송터 기념식 개최



(사)한국방송인동우회 주최 첫 방송터 기념식이 4월 14일 유허비(최만린 고문 제작)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교정에서 김규홍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신임 정관영 회장은 기념사에서 "1950년 연백

수리조합 폭과 작전 계획이 비밀이 누설되면서 특공대 10명이 체포, 사형 당한 후 평화통일 호소문 대북 방송이 있었고, 그 후 6.25가 일어났다."라며 "전쟁을 겪은 9명의 엔지니어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그때 생각이 나 감개무량하다."라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방송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선배님들의 희생에 빛을 지고 있기에 후배들의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한 아나운서클럽 차인태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성호 박사는 기념 강연에서 "방송 역사 정립, 정동경성방송터 복원, 방송박물관 건립, 방송 100년사 발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리디체아카데미 창립 9주년 축하

정흥숙 (전 MBC)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재익 최운형 김규홍 황우경 정흥숙 선병철 유리디체아카데미(회장 정흥숙, 지도교수 음악평론가 선병철) 창립 9주년을 맞아 6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6월을 주제로 한 '전쟁과 영화와 음악의 만남' 특강과 DVD 감상에 이어 바리톤 임준식의 특별 공연과 만찬으로 진행된 기념행사는 아나운서클럽의 황우경 고문을 비롯해 김규홍, 김재익, 이혜옥, 최운형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9년 당시 정 회장의 동문과 방송국 후배 30여 명으로 시작한 유리디체아카데미는 일상을 풍요롭게 가꾸고자 연회비를 내고 매주 첫 번째 화요일 오후에 클래식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듣고 DVD를 감상하는 모임으로, 이 날 황 고문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정신여고 동문 합창단 프랑스 연주 여행



안주희 (전 MBC)

합창단 '아름다운 인생(Belle Vie)' (단장 신난식)의 메조소프라노(사진 맨 위 왼쪽에서 두 번째)로서 프랑스 오를레앙 잔다르크 축제 한국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연주 여행을 다녀왔다. 합창단은 5월 3일 오를레앙의 성베드로성당, 5월 5일 파리의 미국인성당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14, 15세기 성가곡을 비롯해 팝, 민요, 가곡 등을 연주했다.

2012년 정신여고 동문들이 결성한 '아름다운 인생'은 2014년 '전국시니어합창대회'에서 대상인 문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MTN <비즈정보플러스> MC 맡아



신영일 (전 KBS)

MTN의 매거진 프로그램 <비즈정보플러스>를 진행 중이다. 1994년 공채 24기로 입사,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퀴즈 대한민국>, <러브 인 아시아>를 진행하다 2007년 프리랜서를 선언한 신 회원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최근 주식 정보 전문 '한국파이낸스그룹'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다.

채널 A <외부자들> 새 MC로 발탁



박혜진 (전 MBC)

5월 28일부터 개그맨 남희석에 이어 채널A 시사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MC로 발탁되었다.

2001년 입사 후 3년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던 박혜진 회원은 <생방송 화제집중>,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1> 등을 진행하다 노조 파업 장기화로 인해 2014년 퇴사했다. 3년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도식 사회를 보았고 현재 MBC경남 <소수의견>을 진행 중이다.

안산시 감골도서관서 독서 특강



한석준 (전 KBS)

5월 9일 경기도 안산시 감골도서관에서 '디지털 영상의 시대, 그래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비단숲 출판사와 크로스케이트의 대표로 「유비에게 묻고 조조에게 배우다」(2012년)를 펴낸 한 회원은 2003년 입사, <우리말 겨루기>, <1대100>, <위기탈출 넘버원> 등을 진행했고, 2015년 퇴사 후 MBN <아궁이>, OtvN <프리한 19>, 채널 A <닥터 지바고> MC를 맡고 있다.

2017년 퇴사 후 일본의 이색 책방들을 둘러보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책방 '당인리책발전소'를 내기까지 과정과 포부를 담은 「진작 할 걸 그랬어」(위즈덤하우스)를 출간했다. 김 회원은 2012년 입사, <MBC 뉴스데스크>, <뉴스 24>, <뉴스투데이> 앵커로 활약했고 <굿모닝 FM>에서 책을 읽어주는 '세계문학전집' 코너를 맡기도 했다. 최근 남편 오상진 회원과 함께 KBS 2TV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진작 할 걸 그랬어> 출간



김소영 (전 MBC)

2017년 퇴사 후 일본의 이색 책방들을 둘러보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책방 '당인리책발전소'를 내기까지 과정과 포부를 담은 「진작 할 걸 그랬어」(위즈덤하우스)를 출간했다. 김 회원은 2012년 입사, <MBC 뉴스데스크>, <뉴스 24>, <뉴스투데이> 앵커로 활약했고 <굿모닝 FM>에서 책을 읽어주는 '세계문학전집' 코너를 맡기도 했다. 최근 남편 오상진 회원과 함께 KBS 2TV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튜닝3.0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열어



김필원 (전 CBS)

튜닝3.0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열었다. 2001년 입사, 밝고 힘찬 진행으로 2013년 한국아나운서대상 라디오진행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9월 퇴사했다. 김 회원은 상담 코칭 석사와 상담사, 코치 자격증을 활용해 심리 상담과 연계한 개인 및 집단의 화법 교육, 기업을 위한 소통 강연과 미디어 트레이닝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 방 | 송 | 가 | 소 | 식



## 파업 종료 후 대대적 인사 개편



김현태



김태규



김홍성



정세진

파업 종료 이후 KBS에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있었다. 4월 12일에 1993년 입사한 김현태(19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7일에는 부장급 인

사로 1부장에 김태규(22기), 2부장에 김홍성(21기), 한국어연구부장에 정세진(24기) 아나운서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19일에는 배창복(26기) 아나운서가 기존의 김기만(27기) 아나운서와 함께 아나운서1부 팀장으로, 최원정(26기), 이영호(28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2부 팀장, 홍소연(24기), 박노원(27기) 아나운서가 한국어연구부 팀장으로 새롭게 배치되었다. 또한 이형걸(20기) 아나운서가 KBS이사회 사무국장, 박영주(11기) 아나운서가 포항방송국장으로 발령받았다.

## 제45기 신입사원 3명 선발



4월 2일 입사한 45기 남현중, 김도연, 박지원 아나운서(사진 왼쪽부터)가 연수원과 아나운서실 직무 연수 후 6월부터 각각 전주, 창원, 대구로 지역 순환 근무를 시작했다.

## 뉴스 생활정보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대폭 물갈이

<9시 뉴스> 주중 앵커로 김솔희, 주말 앵커로는 김지원 아나운서가 새롭게 배정되었다. <스포츠 뉴스9>에는 주중에 이재성, 주말에 이해성 아나운서가 발탁되었다. <930 뉴스>는 박지현 아나운서, 2TV <아침 뉴스타임>은 백승주, 오연중 아나운서가 맡았다. <생활정보>는 오승원, 이지연 아나운서가 기존의 도경완 아나운서와 함께 투입되었다. <아침마당>은 김재원, 이정민 아나운서, <6시 내고향>은 기존 가애란 아나운서와 함께 윤인구 아나운서가

맡았다. <아침이 좋다>는 한상현, 정지원, 강승화 3MC 체제로 개편되었고, 2TV <여유만만>은 김승휘 아나운서, 조영구 MC와 함께 5월 28일부터 출산휴가 후 복귀한 정다은 아나운서가 합류했다. 또한 KBS 클래식FM이 5월 28일부터 개편을 단행, <당신의 밤과 음악>에 감미로운 중저음의 이상협 아나운서가 발탁되었다. 매일 낮 12시 <생활 클래식>은 두 시간으로 확대 편성되어 박지현 아나운서가 행복한 한낮에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시행

KBS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사업 '2018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 4월 16일 서울 신목중학교에서 시작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욕설과 비속어, 사이버 언어 폭력의 폐해를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말하기 요령을 전달했다. 올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오는 12월까지 전국 100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특히 소외된 도서지역을 위해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 정용실 세 번째 수필집 「공감의 언어」 출간



대화의 의미와 소통의 가치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 「공감의 언어」(한겨레출판사)를 펴냈다. 저자의 공감 방식인 독서와 은유 훈련법을 공개해 자존감을 지키며 깊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정용실 아나운서는 1991년 공채 18기로 입사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소비자고발」, 「한국 한국인」 등을 진행했으며, 「서른, 진실하게 아름답게」(좋은생각, 2006년),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나무생각, 2014년)를 펴냈다.

## 이상협 첫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 출간



2012년 등단 후 첫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민음사)을 출간했다. "훌륭한 시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나만 쓸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시인의 말처럼 뉴스 앵커로서 인터뷰한 경험, 출장이란 기묘한 여행 등 현실과 관계의 사이에서 독특한 감성으로 빚어낸 시들이 실려 있다. 2002년 입사하며 이규향 아나운서 아들로도 유명한 진 이상협 아나운서는 1998년 제9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 수상, 2012 현대문학 시 신인상 수상, 2014년 사진전 개최 등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이다.



## 5년 만의 신입사원 공채, 아나운서 3명 합격



김정현



이영은



김수지

2013년 이후 5년 만에 16개 분야에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 올해 김정현, 이영은과 함께 작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김수지 아나운서가 합격했다. MBC는 이번 공채에서 서류전형 폐지는 물론 학력과 연령, 국적 제한 없이 응시자의 능력만을 평가했다.

## 프리랜서 김정근 복귀, 축구 중계와 <기분 좋은 날> 맡아



MBC를 퇴사해 프리랜서로 나섰던 김정근 아나운서가 5월 8일부터 아나운서실에 출근 중이다. 여러 계약 관계 및 서류상 절차 때문에 정식 발령은 나지 않은 상태로 <MBC 스포츠> 축구 중계를 비롯해 5월 21일부터 <기분 좋은 날> 진행도 맡고 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2004년 입사해 <원더풀 금요일>, <오늘 저녁> 등과 <MBC 스포츠 뉴스>를 비롯해 각종 올림픽 및 월드컵 등에서 캐스터로 활약했다.



## 최기환 장예원, 소외 어린이 위한 <희망TV SBS>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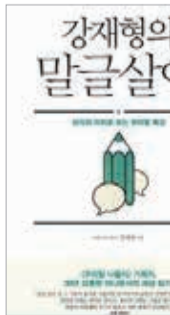
21년간 3,900여 억 원을 모금해 소외된 어린이에게 사랑을 전해왔던 <희망TV SBS>가 최기환, 장예원 아나운서 진행으로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방송되었다. 2008년부터 함께한 최기환 아나운서는 2013년 부룬디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국민연금 홍보대사 활동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모델료를 받지 않는 명예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처음 MC를 맡은 장예원 아나운서는 4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소방학교에 안전장갑 139켤레를 기부하며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다.

## 김운상, <백종원의 골목식당> <로맨스 패키지> 출연



5월 23일 <백종원의 골목식당> '해방촌 신흥시장' 편에 출연해 맛 평가를 한 데 이어 5월 30일 방송된 청춘 남녀 10인의 공개 연애 프로젝트 <커플 메이킹 호텔-로맨스패키지> 제주 편에서 105호로 출연했다. 2015년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현재 <모닝와이드> 2부 '파워 스포츠'와 <주말 8뉴스>의 '스포츠뉴스'를 맡고 있다.

## 강재형, 잘못 쓰고 있는 말 등 모아 「말글살이」 출간



강재형 아나운서국장이 방송 현장에서 마주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 속 잘못 쓰고 있는 말, 공공 언어의 바른 사용 등 우리말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말글살이」(기쁜하늘)를 출간했다. 1987년 입사한 강 국장은 「표준말 지침이」를 자처하며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말 나들이'를 기획하고 국어심의회와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6년 아나운서클럽상, 2013년 한국아나운서대상, 2014년 한국어문상 대상을 수상했다.



## 봄 개편으로 뉴스 진행자 일부 교체



3월 26일 시행한 봄 개편으로 아나운서팀 진행자 일부가 교체되었다. 조은유 아나운서가 평일 메인뉴스인 <뉴스M> 앵커로 자리했고, 유영선 아나운서가 평일 저녁 <월드뉴스>와 마감뉴스인 <뉴스라인>을, 김준우 아나운서가 <주말 뉴스M>과 <경기의정보고서-민생돋보기> 진행을, 유진영 아나운서가 <945뉴스>를 맡고 있다.





### 박재홍, 장애인의 날 교육부장관상 수상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푸르메재단 재능기부와 교육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 <그대와 여는 아침> 5집 편집 음반 출시



김용신 부장이 진행하는 <그대와 여는 아침>이 2009년 1집 발매 후 지난 3월 다섯 번째 '청취자와 함께 만든 베스트 팝 컴필레이션' 음반을 냈다. 음반에는 제작진이 선택한 팝송 40곡과 청취자 사연들이 두 장의 CD에 담겨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출근길 유일의 POP 음악 프로그램이다.



### <봄의 하모니> 음악회 열려

사우스웨스턴 아티스트와 함께한 <봄의 하모니> 음악회가 5월 11일 오후 3시 극동아트홀에서 열렸다. 클래식과 교회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 소프라노, 테너의 독창, 중창과 합창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였다.

### 남현용 '봄에 드리는 나의 시' 제작 진행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공개방송 '봄에 드리는 나의 시'가 남현용 아나운서의 제작·진행으로 4월 17일 저녁 극동아트홀에서 열렸다. <라이브 워십> 출연진의 찬양으로 희망을 전한 시간이었다.



### 아나운서부 체육대회에서 우리말 공부도 겸해



6월 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족구, 배드민턴 등 간단한 경기 후 우리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우리말 고운말' 프로그램 제작 관련 토의 후 김병훈 아나운서부장의 강의로 올바른 방송언어에 대해 배우게 된다. tbs 아나운서들이 만드는 <우리말 고운말>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 56분에 FM 95.1에서 들을 수 있다.

### <중독...> PD대상 지역R특집 작품상 수상

3월 15일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한 제30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송옥석, 장찬희, 공나현 아나운서가 제작한 <중독, 어딴(Addiction)>이 지역 라디오 특집 작품상을 수상했다. 중독으로 고통 받거나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창립 30주년 맞아 프로그램 새 단장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창립 30주년을 맞아 5월 15일 프로그램을 새로 단장했다. 김지현, 김슬애 아나운서가 <TV 가톨릭 매거진 교회는 지금(화 21:00)>, 이나래 아나운서와 개그맨 이동우가 <한낮의 가요선물(월~금 12:15~14:00)>, 이정민 아나운서가 가톨릭 시니어, 의료, 농생명, 문화 등을 인터뷰로 전하는 <우리는 코이노니아(월~목 16:00~17:00)>를 맡았다. 한편 신의석 아나운서는 <신의석의 11시가 좋다(월~금 11:00~12:00)> 창립 기념 특집방송으로 지역 방송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이원생중계를 통해 소통하고 올드 팝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다.

### 김부궁, 제작부서 아나운서부로 복귀



5월 1일자로 아나운서부로 복귀했다. 김부궁 아나운서는 1995년 평화방송에 입사, <음악, 삶을 만나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신앙상담 따뜻한 동행>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1년간 라디오국 제작부에서 <기쁜소식 밝은세상>을 제작해왔다. 김 아나운서는 창립 30주년 개편을 맞아 클래식 음악으로 청취자와 소통하는 <FM 음악 공감(월~토 9:00~11:00)>을 진행 중이다.

### 김지현·김슬애, 성당 전례 교육



4월 한 달 동안 서울대교구 불광동성당에서 30명의 전례단원을 대상으로 전례 교육을 실시했다. 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들은 그 동안 서울대교구 둔촌동성당, 수원교구 하안동성당, 의정부교구 덕소성당 등의 신청을 받아 기초 발성, 발음법 강의와 1:1 코칭을 통해 바르게 성경을 봉독할 수 있도록 방문 교육을 해왔다.

### 우리말 다듬기 눈초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20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 받침의 발음 / 말음末音법칙



이규향

-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KBS 아나운서 실장
- 한국어문화 한자급 취득자
- 음성언어교육 강사
-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語末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예) 닦다[다까] 웃다[웃:따] 뉘다[뉘따]

결받침 'ㄱ, ㆁ,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語末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예) 뉘[뉘] 앓다[안따] 뉘다[뉘따] 외곶[외곶] 활다[활따] 없다[업:따]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고 'ㄴ'은 다음 경우 [ㄴ]으로 발음한다

- 뵤다[뵤:따] 뵤고[뵤:꼬] 뵤는[뵤:는]
- 뵤죽하다[뵤쭈카다] 뵤둥글다[뵤똥글다]

받침 'ㅆ'은 여덟[여덟] 째다[째따]처럼 [ㄷ]로 발음하는데, '뵤다'만은 뵤지[뵤:찌]처럼 예외적으로 [ㅂ]으로 발음한다. '뉘다'의 경우에도 [뉘따]처럼 'ㄷ'로 발음하나 합성어의 경우 뉘적하다[뉘찌카다]처럼 'ㅂ'으로 발음한다.

결받침 'ㄹ, ㅍ, ㅊ'은 어말語末 또는 자음 앞에서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예) 뵤다[뵤따] 째다[째:따]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즉 맑게[말께] 뵤고[뵤꼬] 읊거나[읊꺼나]로 활용되는데, '뵤다, 굶다'도 함께 어미의 활용 이론에 앞서 외국어의 불규칙동사처럼 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받침 'ㅎ'은 'ㄷ, ㅌ' 뒤에 'ㄱ, ㄷ, ㅈ'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예) 놓고[노코] 많고[만:코] 좋던[조:턴] 앓던[안턴] 닦지[달치]

그리고 'ㅎ/ ㄷ,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낳은[나은] 많아[마:나] 싫어[시러]

'ㄱ, ㄷ, ㅂ' 다음 'ㅎ'이 오는 경우 [ㅋ, ㅌ, ㅍ]으로 발음한다. 예) 국화[구과] 정직하다[정지카다] 만형[마형] 입학[이파]

결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뒤의 받침만을 제2음절 첫소리로 발음한다. 예) 없어[업:씨] 젊어[절머] 아이[안자] 닭이[달기] 흙을[흙글] 값을[갑쓸]

요즘 아나운서들조차도 명사 '닭'과 '흙'의 격변화格變化에서 [다기], [흐글]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통닭'의 표준 발음도 [통달글]이다. 그러나 '흙 위'는 [흙귀]가 아닌 [흐귀]이다. '닭이', '흙을'에서 '닭'과 '흙'은 뜻이 있는 실사實辭이며 '이'는 뜻이 없는 허사虛辭이기 때문에 연음連音법칙이 적용되었지만 '흙'과 '위'는 같은 실사이기 때문에 절음絶音법칙으로 '흐귀'가 된다.

'맛있다/멋있다'에서 '맛/멋'과 '있다'가 같은 실사이기 때문에 두 낱말을 동격으로 존중하여 발음하므로 [마딤따/머딤따]가 원칙이나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마싯따/머싯따]도 허용하는 복수 발음이 되었다. '값어치'에서 '어치'는 '값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뜻의 실사이므로 두 낱말을 동격으로 발음하는 절음법칙을 적용하여 [갑씨찌]가 아닌 [가버찌]이다.

### '발음 이야기' 연재를 마치며

일상에서 싱겁고 재미없어 따분한 사람을 문법학자 같다고 한다. 필자로서는 글을 '쉽다, 재미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신조로 쓰려고 하니 힘에 부칠 때가 많았다.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며 전철 같은 데서도 떠올랐던 생각을 적기도 하였다. 음성 언어의 역사에 작은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힘이 되어 5년 동안 버티며 쓸 수 있었다.

세계 언어의 약센트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던 미국의 CNN 방송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한국어가 듣기 좋은 국어는 아니다'라고 평한 적이 있다. 문자 언어 교육 일반도의 국

어학계에서 이제는 발음 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음성 언어의 산실인 KBS 남산 시절 아나운서실에서 선구자적인 열정을 보이셨던 인천仁泉 장기범 선생님과 문경文兼 전영우 대선배님의 가르침이 '발음 이야기' 연재에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글 다듬느라 애산 황인우 편집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의 길을 뵤뵤:갸.

알림 : 이규향 회원께 감사드리며 제31호부터는 김상준 감사의 글을 연재합니다



**Zoom-in** (사) 한국차인연합회 전우벽 (전 KBS)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 차 마시기 다반사茶飯事면 건강 백세 문제없다!



## 2017년 최초로 정부지정 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

맨 처음 가보았던 운현궁 ‘차의 날’ 행사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품격 있는 다구茶具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찻자리에서 차향과 다식을 음미하자 오감의 충족되며 온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기념식 사회도 보고 곳곳을 누비며 행사 전반을 빈틈없이 아우르는 전우벽 선배의 정갈한 모시 두루마기 차림도 인상적이었다.

그 후로 ‘차의 날’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는 연례행사가 되었는데, 참가 단체 수도 많고 수준이 높아 늘 감탄하곤 한다. 올해 행사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의 날 개최 후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 뜰에서 기념식 위주로 치러졌다. 행사가 끝난 뒤 서울 종로구 경운동 차인연합회를 방문해 선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 편집장 황인우 (전 KBS)

### (사)한국차인연합회를 소개해달라

1979년 1월, 박동선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30여 명의 차인들이 국민 차생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했다.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 창립 회원들의 면모를 봐도 차가 자기 성장의 기회와 품격 있는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정신적인 매개체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박권흠 회장을 표상으로 전국 1,000여 개 단위 차회가 소속되어 있고 그 동안 3,0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해 2017년 정부지정 차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차문화단체이다.

1980년 4월 초의선사의 거처 해남 대흥사 일지암一技庵 복원을 시작으로 1981년, 곡우 40일이 지나 보편적으로 차를 마시게 되는 시기인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와 축제를 개최해왔다. 회지〈차인〉발간,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개최, 다도대학원 설립, 명다기名茶器 품평대회 등 많은 일을 해왔다.

### 어떻게 차인연합회와 인연을 맺었나?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결성된 ‘완월차회玩月茶會’란 모임 덕분이다. 1983년 4월 뒤늦게 본 아들 흥구의 백일을 축하하러 우리 집에 모인 동료 중 이세진, 이계진, 김상준, 미술 담당 한인현 씨 등이 그 해 7월 부부동반 모임을 만들어 차를 즐겨 마셨다. 우리 모임이 1997년 차인연합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그런 인연으로 박권흠 회장과 박동선 이사장의 고회 사회를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해 3월 정년퇴직 하자마자, 일본에 진출한 이승엽 선수가 소속된 치바 롯데 마린스 경기를 독점 중계한 OSB TV에서 야구를 중계했는데, 박동선 이사장이 “이제 방송 그만하고 함께 일하자.”고 하시더라. 마침 이승엽 선수의 승률이 나빠져 20회 중계로 막을 내리는 바람에 바로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직책은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이다.

### 차인연합회 활동에서 잊을 수 없는 일

먼저 2004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대구에서 펼쳐진 제33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이다. 부임하자마자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치르느라 신경 많이 썼고 그만큼 보람도 컸다. 2005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세진, 최원정 아나운서 사회로 펼쳐진 하이 서울 팔도 차문화 큰잔치는 차인연합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린 차의 날 행사도 2,000여 명이 방문한 대형 행사였다. 그리고 차인회관 매입, 전시장 개관 등을 비롯해 2014년 12월 15일 송년다담축제로서 제13회 ‘올해의 차인상’을 수상한 것도 떠오른다.

###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셨나?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읽는다는 칭찬을 들으며 학교 행사 사회도 보다 보니 자연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건국대 입학과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체육부장을 맡았고, 학교 방송 아나운서로서 직접 방송 시설을 갖추어가며 체육대회를 중계하곤 했다. 또한 영주 유선방송 DJ를 하고 있는 고향 친구 김진규 전 KBS PD의 부탁으로 뉴스 캐스터 아르바이트도 했다. 졸업 후 친구의 권유로 함께 CBS대구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나만 합격해 1970년 입사했다. 뉴스는 물론 스포츠 중계, 게다가 ROTC 제6기 포병 중위 출신이라 예비군 중대장까지 두루 쓰일 데가 많아서였던 것 같다.

### 방송생활은 어떠했나?

1973년부터 75년까지 팍송팬클럽 회장으로 ‘YOUNG’ 잡지 발간, 최초의 청취자 엽서 전시회도 열고 배미향 DJ도 발굴하며 다방면으로 열심히 일하다 서울로 진출했다. 1976년 6월 제31회 청룡기 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는 10시간 30분 동안 연속 4경기 중계방송을 해 비공인 1인 세계최장중계방송 기록을 갖고 있다. 1979년 11월에는 도쿄와 나고야에서 열린 ABC 아시아농구 선수권대회를 중계하는 등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하다 1980년 12월 언론통폐합으로 KBS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1982년 3월 프로 야구 개막식, 잠실야구장에서 개최된 1985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야구 중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을 중계하고 2004년 정년퇴직했다. 1991년 KBO 프로 야구 윤길구상과 1997년 방송의 날 공로상, 2001년 한국야구위원회 프로 야구 20년 공로상을 받았다. 그리고 보면 1970년 8월 1일 입사해

2004년 3월까지 34년 방송했고, 그 후 5개월간 일본에서 프로 야구 중계하다 2004년 8월 1일 차인연합회에 들어왔으니 ‘48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셈이다.

### 아나운서 중에 차인도 많은 것 같다

현재 우리 아나운서클럽에서 이세진, 이계진 두 분이 차인연합회 고문이다. 전남 보성 출신 김상준 감사도 태생이 차인이시고, (사)예지원 강영숙 원장님과 이규향 선배님이 오래 전부터 차를 즐겨오셨다. 그리고 이장우, 김승한, 최평웅, 대전의 이종태, 대구의 정정화, 부산의 김병래 선배 등이 있다.

### 커피 위주로 드시는 분들께 차를 권한다면

이미 2016년에 차인연합회에서 ‘전국민 차마시기 운동’을 선포했지만, 우리나라가 커피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차생활이 많이 힘들다. 특히 올해는 냉해로 차수확이 줄어 여러모로 어렵지만, 무엇보다 ‘차가 번거롭다’는 대중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그래서 ‘입석 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냥 비이커에 차를 넣어 우려 마시면 된다. 절차에 부담 갖지 말고 나름대로 차를 자주 마시다 보면 점점 격식을 갖추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차문화를 즐기다 보면 다례茶禮가 추구하는 중정中正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은퇴한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니 차를 즐기라고 말씀드리다. 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차의 주성분 폴리페놀이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기 문화를 즐기며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b>고맙습니다</b> 6월 10일까지 입금순							
클럽 발전기금 내주신 분	이현우(전 MBC) 30만 원	이후재(전 KBS) 30만 원	이장우(전 KBS) 20만 원	이금희(전 KBS) 50만 원	최윤락(전 KBS) 30만 원	성선경(전 DBS) 50만 원	차인태(전 MBC) 50만 원
<b>축하합니다</b>	이현우(전 MBC) 8월 11일(토) 정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이닝스톤에서 장녀 윤희 양 혼사	김선근(KBS) 5월 30일 차녀 득녀	김주원(전 MBC) 5월 5일 차녀 희연 양 혼사	양승은(MBC) 4월 7일 회사원과 혼인	고광수(전 KBS) 5월 19일 아들 현준 군 혼사	김윤주(CBS) 5월 1일 득녀	
<b>수고하셨습니다</b>	김솔아 5월 31일 cpbc 퇴사				<b>조의를 표합니다</b>	최윤락(전 KBS) 5월 2일 모친상	반주원(전 MBC) 3월 22일 모친상
						서은선(전 MBC) 3월 23일 시부상, 4월 28일 시모상	



수필

## 청춘합창단, 세계 음악제 무대에서 기립박수 받다

글 / 조석영 (전 MBC)

우리 79세 동갑내기 부부 노후의 황금기,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이 2015년 6월 유엔본부 공연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연주 여행을 성공리에 마쳤다.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생한 감동은 일상의 활력소로 작용한다.

청춘합창단(Grey Youth Choir)이 창단 6년 만에 2017년 11월, 오스트리아의 제2 도시 그라츠에서 열린 세계합창페스티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유럽의 전문 합창단과 중창단이 대거 참가해 경쟁과 심사의 부담 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산하며 즐기고 서로의 특징을 배우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음악 축제이다. 우리와 같은 아마추어 시니어 합창단으로서는 참가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권위 있는 대회인데, 우리 합창단의 실력이 다각도로 입증되면서 주

최 측은 동양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팀을 초청해 무려 세 차례의 연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많은 팀이 출연하는 탓에 연주곡은 3곡으로 제한되어 있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업적을 기리는 대회의 주제에 맞추어 바흐의 작품이 필수인데다 세 차례의 공연이었으니 한국 합창곡 2곡까지 최소 여섯 곡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다. 폐막식 때 모든 참가팀이 함께 부를 독일어 가사의 바흐 합창곡까지 익히느라 평균 연령 65세의 50명 단원들은 김상경 지휘자의 지도 아래 6개월 동안 강도 높게 훈련했고, 출국 석 달 전부터 주 2일 연습하며 암보암譜한 덕분에 연합 합창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유서 깊은 마리아힐페 대성당에서 열린 개막식 연주에서 유엔본부에서처럼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선 우리들의 얼굴엔 자부심과 함께 다소간 비장감마저 감돌았지만, 철저히 준비한 만큼 주목을 받으며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폐막식 티켓도 일찌감치 매진돼 뒤늦게 입장권을 구입하려던 현지 교민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두 번째 연주는 이튿날 그라츠 시장이 오찬에 초대된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중은 시청 직원들과 합창제에 참석한 각 팀 지휘자와 단장들이었고, 연주 후 바로 시청 발코니로 옮겨 청사 앞 광장에 있던 군중의

환영을 받은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연주 여행의 백미는 폐막식 공연 때 그라츠 최고의 공연장인 스테파니엔 홀에서 만장의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것이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박수갈채에 단원들은 물론 대회 참가를 위해 애썼던 기획사와 현지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 성취감과 안도감, 행복감을 만끽했다. 현지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어느 교포는 "고국에서 왔던 어떤 전문 단체보다도 열띤 찬사를 받은 청춘합창단의 공연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며 함께 자랑스러워했다.

꿈의 공연을 마친 일행은 비엔나와 쾰른부르크, 그리고 체코 프라하의 명승지를 둘러보며 한껏 유쾌한 시간을 즐겼고, 도처에서 틈나는 대로 즉석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생음악을 선사하며 열띤 박수를 받기도 했다.

다음 무대는 어디로 정할 것인가? 요즘도 단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평양을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고국의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해외동포 위문을 먼저 갈 것인가? 합창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요즘이다.



## 히말라야 산간마을 땅땅에 심은 꿈과 희망

글 / 류지현 (전 SBS) 편집위원



2017년 12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옷과 학용품 등 지원 물품을 가방 가득 채우고 네팔행 항공에 몸을 실었다. 네팔을 돕는 NGO '나마스떼 코리아'로부터 강의와 활동 지원 요청을 받고, 평소 '함께 이해하고 교류하는 지구촌 세상'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기꺼이 돕겠다고 나선 터였다. 기왕이면 문명의 혜택과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곳이 더욱 의미가 클 거라 생각해 쉽게 가기 어려운 히말라야의 산간 마을까지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막상 여정을 시작하려니 은근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카트만두까지 8시간의 비행, 연결편이 없어 카트만두서 밤을 보내고 히말라야 여행과 트레킹이 시작되는 포카라까지 2시간가량 로컬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사람도 저울에 무게를 재고 탑승하고, 일어나면 머리가 달아 몸을 숙여야 하는 작고 낡은 경비행기였다. 그리고 다시 낡은 트럭 하나에 구겨 들어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곡예처럼 4시간을 달렸다.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을 태워, 짐칸이고 지붕이고 문 밖이고 차 밖에 매달려 서라도 동승하니 5명으로 출발했던 차량은 도착 즈음엔 어느새 12명이 되어 있었다.

그나마 산간 마을까지는 길이 막혀 결국 차에서 내렸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짐을 함께 옮기며 30분가량 산을 오르자 장대한 히말라야의 설산 안나푸르나가 병풍처럼 펼쳐진 목격지 '땅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기나긴 여정의 피로로 지친 얼굴이 무색하게 산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직접 만든 꽃다발 세례(사진 참고)로 땅땅의 첫 날이 시작되었다.

첨단 문명의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하루 불과 몇 시간 불을 밝히는 땅땅까지의 여정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세기의 시간을 넘어간 듯 하루 더 넘게 걸린 소요 시간 이상의 시차를 느끼게 했다. 금방 밭에서 딴 감자와 컬리플라워, 푸른 채소 한 가지, 아침에 직접 짜낸 따뜻한 우유, 따끈한 온기가 남아 있는 달걀 등이 전부인 소박한 식단에, 대낮에도 집안에서 어둠 속을 더듬어 식사를 하는 곳, 채 가려지지 않은 지붕과 창으로 하늘의 별과 마주 보며 온 몸으로 찬기를 꺼내고 자는 곳, 가진 것이라곤 장엄한 자연의 선물 히말라야뿐.



그런데 자연의 일부로 남아 있는 듯한 이 산간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른 아침 목에 방울을 단 염소와 소를 몰고 산 위를 오르는 아낙네들 손엔 들린 휴대전화. 100년 전에도 사용하던 화로에서 전기 없이 어둠 속에 음식을 하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은 문명과 자연의 부조화를 보여주는 듯하다.

6개년 계획으로 1년 반 전 시작된 수력발전 프로젝트도 변화의 큰 동력이다. 지난해부터 참여한 한국 업체 등 다국적 기업들이 땅땅과 주변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고 관광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땅땅이 바깥세상과 소통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무엇보다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땅땅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가는 것조차 기적으로 여겼던 땅땅에서 이제는 Himalayan Milan 졸업생 17명 전원이 대학 진학을 꿈꾼다. 이런 변화 뒤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감명 받아 네팔도 한국처럼 거둬야 한다며 주민들을 일깨우는 땅땅 Milan 학교의 Om Prekash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 한국의 발전을 교훈으로 무無에서 잠자던 땅땅을 눈뜨게 하고 더 큰 발전을 그린다.

"What is your dream?" 이란 제목으로 강의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내가 남기고자 한 것 또한 '꿈'과 '희망'이었다. 수줍은 듯 고개 숙이지만 호기심 가득해 보이는 땅땅 학교의 학생들, 선생님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주치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곱게 두 손을 모아 '나마스떼!' 하고 인사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이들에게 지원 물품보다 더 중요한 건 희망을 심어 주는 일과 교육을 통한 변화라고 확신했다. 그런 소신으로 전했던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 23일 땅땅에서 다시 포카라를 거쳐 카트만두를 경유해 인천공항까지 돌아오는 길은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깥세상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이들의 희망의 다리가 벌써 이어진 것을 느끼기에... 네 팔과 땅땅이 내게 준 여운들 - 저녁이면 이 웃도 가족이 되어 함께

모이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겨운 수다, 서두르지 않고 태연한 '네팔식 시간', '나마스떼!' 인사와 함께 활짝 피어나는 '순수 미소'. - 그것은 곧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자산이기도 하다. 그건 혹시 나와 우리가 어느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아니었을까!







동아제약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야 하는

엄마라는 일

그 어떤 경력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스펙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나를 아끼자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